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가장 대화의 '스승'은 동양 사상가이다.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로지 타인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
- ② 국가가 이웃에 대한 선행을 제도화시키고 강제해야 한다.
- ③ 이해 관계를 따져 자신에게 이로운 이웃만을 도와야 한다.
- ④ 나와 남의 구분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⑤ 이웃과 나의 인연을 깨닫고 타인의 모든 행위에 간섭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진인(眞人)은 참된 얇을 지닐 수 있다. 진인은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일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으며, 잘되어도 스스로 만족해 하거나 뽐내지 않는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도 멀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가도 뜨거워하지 않는다. 그의 얇이 도(道)에 이르면 이와 같다.

- ① 일체의 분별을 넘어선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② 오감(五感)으로 터득한 지식만이 절대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③ 참된 수행으로 만물을 차별하는 재물(齊物)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인간과 자연의 위계를 세워 자연과 분리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사회 제도에 따라야 한다.

4. (가)를 주장한 근대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고통이 없겠는가? 우리는 우주 만물의 근원인 일원상(一圓相)을 자각하여 일체 중생의 본성이 같음을 알고, 도덕을 훈련함으로써 물질 세력의 항복을 받아, 고통을 겪는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	학생: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상가: ⑦ 합니다.

- ① 오로지 내세의 삶을 위해 신앙 생활에만 충실히 해야
- ②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깨달아 사회적 차별을 극복해야
- ③ 일상생활과 분리된 엄격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 ④ 전통적 가치를 모두 버리고 서양의 과학 문명을 수용해야
- ⑤ 물질문명을 거부하고 정신문명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해야

2. (가), (나), (다) 사상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자신의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되니, 자신의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 (나) 씨가 있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어 씨가 나오듯,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 (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려함을 본받는다.

<보기>

- ㄱ. 유용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자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 ㄴ. 인간과 만물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생 관계이다.
- ㄷ. 만물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 ㄹ.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로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군자(君子)가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인의예지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으로 생겨난 빛은 해맑아서 얼굴에 드리나고 온몸에 펴져 나가 말이 없어도 스스로 알게 된다.
○ 대장부(大丈夫)는 천하의 큰 도(道)를 행하여 뜻을 얻지 못해도 홀로 그 도를 실천한다. 부귀해도 빈천해져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며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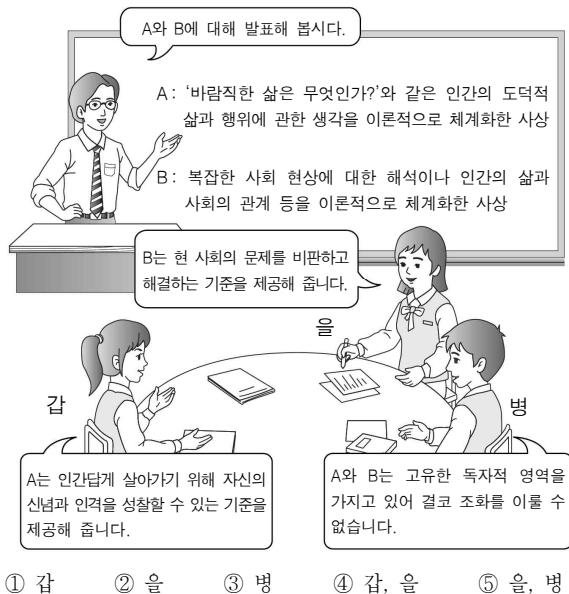
- ① 천리(天理)를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 ② 도덕 규범을 모두 부정하고 잃어버린 본성을 되찾은 사람이다.
- ③ 사단(四端)을 확충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른 사람이다.
- ④ 후천적인 노력 없이 태고난 욕망에 따라 인격을 완성한 사람이다.
- ⑤ 의로움[義]을 행하는 것보다 물질적 이익[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2

6.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7. (가)의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은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이 모두 이(理)와 기(氣)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사단을 이, 칠정을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p> <p>을: 사단은 선한 정(情)의 다른 이름이고, 칠정은 이미 사단을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 사단이 칠정이 아니라거나 칠정이 사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찌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p>
(나)	<p><별 예></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율만의 입장</p>

- <보기>
- ㄱ. A: 사단은 이가 발(發)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다.
ㄴ. B: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선악의 가능성은 모두 가진다.
ㄷ. C: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지만 생겨난 연원이 다르다.
ㄹ. C: 사단은 단지 칠정에 포함된 순선(純善)한 부분일 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네 가지 고귀한 진리[四聖諦]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나와 그대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윤회의 굴레에서 헤매야만 했다. 네 가지의 고귀한 진리는 현실적 삶이 괴로움이라는 고귀한 진리[苦諦],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고귀한 진리[集諦],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고귀한 진리[滅諦],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고귀한 진리[道諦]이다.

<보기>

- ㄱ.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하여 무명(無明)에 이르러야 한다.
ㄴ. 변하지 않는 자아의 확립을 위해 집착을 모두 버려야 한다.
ㄷ.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ㄹ. 모든 것이 생명한다는 무상(無常)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양능(良能)이라 하며, 생각하지 않고서도 아는 것을 양지(良知)라 한다. 어려서는 그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성장해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을: 사람의 본성은 악하며 선은 인위적인 것[僞]이다.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로움을 좋아하기에 쟁탈이 생겨나고 사양함이 없어지며, 나면서부터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기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

- ①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가?
② 인간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③ 인간은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는가?
④ 인간은 수양과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가?
⑤ 인간은 예의를 배우고 익혀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10.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라의 크기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다[小國寡民]. 훌륭한 도구가 있을지라도 쓸 일이 없다.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 자기의 음식을 달게 여기고, 자기의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자기의 거처를 편안해 한다. 이웃 나라가 바라보여도 닦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는다.

<보기>

- ㄱ. 통치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선악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ㄴ. 인위적 조작이 없는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ㄷ. 물이 지닌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본받아야 한다.
ㄹ.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덕과 예법을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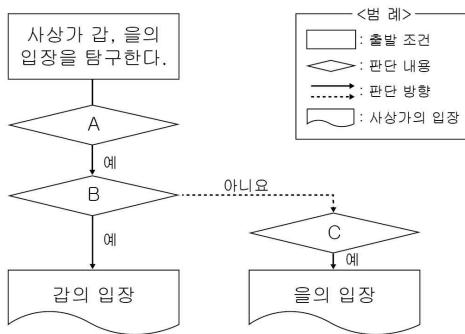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12]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마음[心]은 이(理)를 갖추고 있는 곳이고, 성(性)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은 곧 이이고, 마음은 이것을 싣고 있다가 베풀어 쓴다. 즉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이다.

을 : 마음이 곧 이이다. 천하에 마음 밖의 일이 있고, 마음 밖의 이치가 있겠는가? 부모에게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임금에게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다. 모두 마음에 있을 뿐이다.

11.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 : 천리를 보존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해야 하는가?
 - ㄴ. B : 마음과 개별 사물들 속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는가?
 - ㄷ. B : 도덕적 깊[知]과 도덕적 실천[行]은 둘로 나눌 수 없는가?
 - ㄹ. C : 양지(良知)는 수양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성(性)이란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嗜好)이다. 이는 채소가 거름을 좋아하고 수초가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 어찌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알맹이가 주령주령 매달려 마치 사람 마음 속에 복숭아씨와 살구씨가 숨어 있는 듯하겠는가? 분명 인(仁)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 하늘이 사람 마음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니다.

- ① 사덕은 사단의 실천으로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② 인간과 모든 사물의 본성이 동일함을 모르고 있다.
 ③ 도덕적 행위를 통해 자주지권이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④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⑤ 선행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실천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13.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단박에 본래의 성품이 부처임을 깨달아도 오랫동안 몸에 벤 나쁜 습관이나 기운을 갑자기 버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해 점진적으로 닦아서 익혀야 한다. 이를 점수(漸修)라 한다.

을 : 교(敎)를 배우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는 경향이 있고, 선(禪)을 익히는 사람은 외적 경계를 잊고 내적인 것을 밝히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안과 밖을 온전히 닦아야 한다.

- ① 갑 :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고정된 실체를 확립해야 한다.
- ② 갑 : 습기(習氣)를 없애기 위해 정(定),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 ③ 을 : 교리에만 의지해서 부처의 마음과 말씀을 배워야 한다.
- ④ 을 : 선종을 중심으로 내외겸전(內外兼全)을 이루어야 한다.
- ⑤ 갑, 을 : 경전 공부 없이 참선 수행만으로 부처를 찾아야 한다.

14. 다음 검색 화면에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중국 위·진 시대에 나타난 철학 사조로서 도가의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유가의 경서를 해석하며 형이상학적인 철학 논변을 전개하였다. 부패한 현실을 벗어나, 예와 도덕성을 초월한 우주론적 최고 원리의 경지를 토론하는 논변을 즐겼다. 철학적·예술적 사유와 가치를 중시하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이 대표적이다.

- ① 신선(神仙)이 되기 위해 제왕의 통치술만을 강조한다.
- ② 도덕적 행위와 불로장생(不老長生)이 무관함을 강조한다.
- ③ 일상의 행위에 점수 매기는 공과격을 통해 선행을 강조한다.
- ④ 도(道)에 대한 탐구보다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 ⑤ 텔속적 가치와 무(無)의 세계에 대한 청담(淸談)을 강조한다.

15. 가상 대화의 ‘스승’은 고대 동양 사상가이다.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제자 : 인(仁)이 무엇입니까?

스승 : 집 문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세사를 받드는 듯이 하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己所不欲 勿施於人]. 이렇게 하면 나라와 집안에서 원망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제자 : 인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스승 : 효(孝)와 제(悌)를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삼아, ⑦ 인이 이루어진다.

- ① 군주가 제정한 엄격한 외적 규범을 따를 때
- ② 도덕적 판단 기준에 대한 분별심을 버릴 때
- ③ 이기적 본성을 강력한 법과 형벌로 다스릴 때
- ④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로 돌아갈 때
- ⑤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의 형식을 최우선으로 할 때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2

16. 다음은 어떤 학생의 탐구 보고서 내용이다. 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국 불교 사상가 ○○에 대한 탐구 >

1. 활동 시기: 신라 시대
2. 주요 주장

가. 세상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다.
 나.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두 문(門)도 그 본체에서 둘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다 일심(一心)이다.
 다. _____ ①
 라. 경전을 읽지 못해도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3. 주요 저서: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등

- ① 중도(中道)를 버리고 고통에 치우친 수행에 힘써야 한다.
 ② 경전 해석의 획일화를 통해 여러 이론들을 일치시켜야 한다.
 ③ 화평(和諍)을 통해 여러 종파의 다양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④ 원용회통(圓融會通)으로 각 종파의 특수성을 소멸시켜야 한다.
 ⑤ 육바라밀(六波羅密)의 실천으로 개인의 해탈만을 강조해야 한다.

17.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백성들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을: 백성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지며, 사람들이 기교를 부릴수록 사악한 일이 연속해 일어나고, 법령이 선포되면 될수록 도둑이 더욱 들끓는다. 무위(無爲)로 다스리면 백성은 저절로 순박해진다.

- ① 갑: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군주가 먼저 덕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갑: 도에 따르는 삶을 위해 인간의 문명과 지혜를 벼려야 한다.
 ③ 을: 형식적인 예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도리를 구분해야 한다.
 ④ 을: 자유로운 삶을 위해 모든 욕구를 수양으로 제거해야 한다.
 ⑤ 갑, 을: 하늘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왕도(王道)는 덕으로써 인(仁)을 행하는 것이며, 왕도를 실현하는 자는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력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억지로 복종하지만, 덕으로써 복종시키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진심으로 복종한다.
을: 예(禮)와 의(義)는 성인의 인위에서 생기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성인은 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인위를 일으키고 [化性起僞], 인위가 일어나자 예와 의를 만들었고 예와 의가 생기자 법도를 제정하였다.

- ① 갑: 백성보다 군주를 귀하게 여겨 통치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
 ② 갑: 백성의 항산(恒產)을 보장하는 것이 통치의 최종 목표이다.
 ③ 을: 선한 본성과 능력을 해아려 관직과 지위를 정해야 한다.
 ④ 을: 군주는 외적인 규제나 노력 없이도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
 ⑤ 갑, 을: 군주는 인의의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1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①~④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우리의 도(道)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 가면 서양 문물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도와 기(器), 그리고 의(義)와 이(利)를 가려서 크고 작은과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면 일이 매우 쉽게 될 것이다.

을: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며 천성에 따라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어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전혀 없고 단지 저 자신만을 위해 빌 뿐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①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② 주체성과 절의(節義)를 지키고자 하는 선비 정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을은 ③ 성리학적 질서를 개혁해서 신분적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④ 서양의 종교와 학문이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편 갑, 을은 공통적으로 ⑤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나리를 지켜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마음이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곧 부처이다. 중생이 스스로 부처이니,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다. 만약 자기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부처를 구하겠는가? 자기가 부처임을 스스로 깨닫는 법은 오직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 것[頓悟頓修]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직관(直觀)을 통해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	✓		✓	
돈오(頓悟)를 통해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	✓
중생은 계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	✓
문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